

89.3.10

경비원 아빠 파출부 엄마 일나간새 불 잠긴 지하셋방 남매 질식사

“길 잃어버릴까” 밖에서 자물쇠 채워

특별이 영세서민 부부가 방문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셋방에서 불이나 방 안에서 놀던 두 자녀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질식사 숨졌다.

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마포 망원동 430-14 대근연립 가동 30호 지하에 세들어 사는 권순(30·0레미콘회사 경비원)씨의 집에서 불이 나 권씨의 딸 혜영(5)과 아들 영철(4)군이 바깥으로 나갈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질식사 숨졌다.

불을 처음 본 집주인 안순옥(32·여)씨에 따르면 청소를 하던 중 지하실에서 연기가 올라와 내려가보니 창문으로 연기와 불길이 보였다는 것이다.

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씨는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직장으로, 어머니 이영숙(28)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밖으로 나가 지 못하도록 나무로 된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가둔 상태였다.

집주인 안씨는 안에 두 자녀가 있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 채 불길에 꺼져가자 권씨의 친척을 통해 이들 남매의 어머니 이씨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다. 연락을 받은 이씨가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딸 혜영양은 방안에 엎드린 채, 아들 영철군은 옷더미 속에 코를 묻은 채 숨져 있었다.

두 어린이가 숨진 방은 3평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옷장 등 가구류가 타다만 성냥과 함께 불에 그을려 있었다.

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 금대2리에서 논 9백평에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이겨 지난 88년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지하방을 전세 4백만원에 얻어 살아왔다.

이들 부부는 한때 두 남매를 고향에 있는 70대 노모에게 맡겼다가 지난 1월초 노모가 “너무 힘들어 더 이상 맡아 기르기가 어렵다”며 아이들을 돌려보내자, 같은 연립주택 지하에 세든 이웃 집에 약간의 수고비를 주고 아이들을 맡겼으나 같은 이유로 한달 만에 거절당했다.

또한 이 집에서 3백m 떨어진 망원동 438에는 월 5만원씩인 시립 ‘새마을 벼들유아원’이 있었으나 탁아시간이 오전 9시~오후 5시로 이들 부부가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 이용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.

권씨는 경비원으로 월 30여만 원을, 부인 이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~9시까지 파출부로 일해 월 35만원씩을 벌어들였으며 권씨의 수입은 사글세에서 전세로 옮기며 진 빚을 갚는 데 모두 충당해 왔다.

어머니 이씨는 경찰에서 “평소

파출부로 나가면서 부엌에는 부엌칼과 연탄불이 있어 위험스럽고,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”면서 눈물을 흘렸다. 평소 이씨는 아이들이 먹을 점심상과 요강을 준비해 놓고 나가 일해왔다고 말했다.

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개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 구조로 돼 있다.